

이 사조는 “유학 전통이 세계 사회에 끼칠 가장 중요한 공헌은 ‘天人合一’의 사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천과 사람만이 아니라 地까지도 포함하는 天地人 三才의 합일을 표방하는 인간·우주동형동성적(Anthropocosmic) 세계관으로서 다른 사상과 구별되는 유가적 사유의 특징이기도 하다. ‘회복’의 차원에서 인간·우주동형동성적 세계관은 天人の 상호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한 종교적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며, ‘재수용’의 차원에서 그것은 大地와의 호혜성을 강조함으로써 생태주의적 전환을 나타낸다. 대만의 錢穆(1895-1990)은 人心과

天道의 상호성을 주장했고 홍콩의 唐君毅(1909-1978)은 “내재적 초월”을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의 본성이 하늘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초월성은 인간 전체가 공유하는 비판적 자각 속에 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북경의 馮友蘭(1895-1990)은 마르크스주의적 투쟁 개념을 거부하고 인간 세계 내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의 조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 세 사람의 입장은 현대 신유학의 생태주의적 전환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이러한 생태주의적 전환은 중국과 세계에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

【제83차】 실재론-반실재론 논쟁의 함정

이명현(서울대 철학과 교수)

전통적인 실재론과 반실재론의 논쟁에서는 인식론적 문제와 존재론적 문제가 혼재된 채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존재론적 문제와 인식론적 문제를 구분할 것을 제

안한다.

논제 1(존재론적 논제): 나(나의 의식)로부터 독립된 그러그러한 대상(실재, 세계)이 존재한다. 논제 2(인식론적 논제): 진리는 그러그러한 실재와 문장(명제)에 대응

한다. 그런데 “나의 의식”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 근대이후의 인식론적 전통-제일철학으로서의 인식론은 이러한 두 논제를 하나의 논제로 구성함으로써 인식론적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으로부터 빠져 나오려면 첫째, 두 논제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존재론적 논제를 인식론적 차원으로부터 분리해서 정당화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언어작동가능성의 전제조건으로서 존재

론적 논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Wittgenstein의 “삶의 형식의 일치”가 바로 그러한 존재론적 논제를 확보해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인식론적 논제와 관련해서는 조건화된 인식론(conditioned epistemology)를 제안하려고 한다. 이러한 조건화된 인식론은 전통적인 실재론의 절대적 진리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뿐아니라, 그 반대의 상대주의적, 허무주의적 진리론의 허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